

OpenDoors

2020. 02. Vol. 214

World Watch List 2020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베드로전서 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1.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주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당신은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당신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뼈를 깎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인 사랑은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작게 사랑하는 자는 작게 가슴앓이 한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오점이나 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 역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히 순결하시며 거룩하시다.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하고 그 구성원들은 죄로 물들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티 없이 아름다운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엡 5:27; 계 21:2) 하지만 그 크고

영광스런 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죄와 싸우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4).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들이란 무엇인가? 이 고난들은 모두 동일한 성격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십자가의 고통이다. 이 고난은 대속의 죽음을 초래하였다. 둘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관련된 고난이다. 이 고난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초들로서 진리를 옹호하거나 불의를 규탄하거나 혹은 이 세상의 여러 죄를 지적하는 자들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목말라하셨으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불신 때문에 우셔야 했으며, 자신의 제자들과 친구들의 오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고, 더구나 유다의 배신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한편 첫번째 고통인 속죄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타인이 조금도 관여할 것이 없다. 환언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요 19:30).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는 조금도 보탬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고난들, 즉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어려움들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만이 함께 나눌 수

CONTENTS

있으며 사실상 동참되어 왔다.

예컨대 야고보, 스테반,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많은 간고를 겪었고 결국 복음을 위하여 목숨들을 내놓았다. 교회들을 위한 이같은 고난들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들의 연속이며 보충이다(고후 11:13-29).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처럼 온갖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고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이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로 만들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그런데 이 해산하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해산의 고통은 생명과 새로운 관계와 세계를 펼쳐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는 이미 보상과 기쁨이 배태되어 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 삼기를 위한 고통이란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영광스런 산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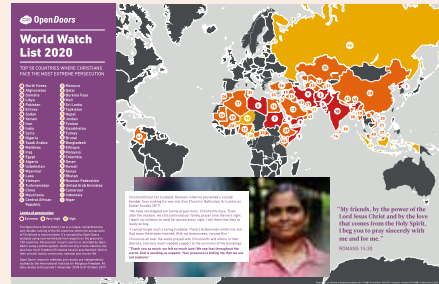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강요당하고 있는 약 2억의 성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깨어있는 전 세계 교회들은 함께 기도드리며 경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20)

06 WWL(월드와치리스트)2020

기독교 박해지수



09 지난 한 해 동안의 기독교 박해동향 5가지

15 WWL2020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 박해보고
국가별 통계

20 뉴스와 업데이트

22 후원자 스토리

인도에서 온 후원자 편지

23 오픈도어 후원 캠페인

알림광고

OpenDoors 2020년 02월호 | 통권 214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김윤태, 윤상덕 목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오현정, 문민환, 박미선 간사

북한선교 _체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20)

드보라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한 나는 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 생각했던 계획은 ‘북경의 남한 대사관이 보이는 건너편 건물에서 줄을 드리워서 대사관 건물까지 밧줄을 타고 대사관으로 넘어가자!’ 는 엉뚱한 생각이었다. 이런 궁리나 하는 내가 영 불안하셨는지 선교사님은 그런 방법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걱정이 된다고 나를 말리시며 길안내를 해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람을 찾는 가운데 마침 좋은 분의 소개로 적당한 길안내자를 찾을 수 있었다. 그때 선교사님은 나만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며 같이 이동하자고 하셨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가정에서 돌보시던 엄마가 북송되고 고아가 된 아기도 함께 데리고 나가기로 했다. 이 아이도 부모도 없고 국적도 없는 아이이니 중국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리고 가려니 아이를 돌보시던 사모님도 함께 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엔 선교사님의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동을 하게 되었다.

걱정했던 것 보다 여정은 순조로웠다. 다만 동남아쪽 국경에서 선교사님 가족은 정상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했지만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정글을 뚫고 국경을 가로질러야 했다. 아침에 선교사님 가족과 헤어지고 미리 준비한 택시를 타고 하염없이 이동했다. 그 택시는 어느 산 아래에 나를 내려주고 떠났다. 택시가 떠나고 길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느 검은 차에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불렀다.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 그 사람들은 나를 다음 위치로 이동시켜줄 사람이었다. 그 차는 나와 아기를 태우고 한참 산길을 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나보고 내리라고 했다. 다 왔는가 싶어서 내렸더니 아직 산중인데 앞에 오토바이가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오토바이 뒤에 타라고 했다. 무서웠지만 별수 없이 오토바이를 탔더니 오

토바이 기사는 나를 태우고 더 깊은 산으로 계속 들어갔다. 한참을 이동한 오토바이는 어느덧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 오토바이는 나보고 내리라고 하더니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어스름한 새벽에 산길을 걸으려니 긴장되고 침이 꿀꺽 넘어갔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더 못갈것도 없다 생각했다.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으니 앞으로의 행보도 인도하소서...’ 기도하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니...’

몇시간을 그렇게 걸었을까... 산을 한참 내려오다보니 어디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또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 오토바이 기사는 나를 보더니 뒤에 타라고 했다. 나를 데리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마저 내려왔다. 드디어 중국을 벗어난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니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탑승해서 어디로 가는지 손짓발짓으로 물



〈동남아 탈북 루트를 따라 산길을 헤치는 탈북자들 (KBS)〉

있더니 자기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 배를 탄다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들은 약속장소와 달랐다. 이러다가 행여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 참을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 그런 와중에 그 운전기사는 아는 친척집에서 좀 쉬었다가 가자고 했다. 쉬는 중간에 나는 도움을 받아 하루 종일 굶은 아기에게 분유를 타 먹였다. 엄청 힘들고 고된 일정이었을텐데 아기는 보채지 않고 분유를 먹고는 순하게 잠을 청했다. 그 아기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후 그 기사가 나에게 와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며 다른 곳으로 안내해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곧 약속했던 숙소로 도착해서 선교사님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조마조마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 나는 그 동남아 국가에서 두 달이 조금 못되게 머물렀다. 나는 현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 대사관과 접촉했고, 대사관에서 숙소도 마련해 주셨다. 숙소에서 나는 쪽복음을 보거나 찬송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말도 안통하고 밖에는 무서우니까 나가지 못했다. 전화도 무서워서 못했다. 대신 숙소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숙소 앞에는 무슨 신전이 있었다. 숙소 건물 입구에도 조그마한 제사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특이하게 많은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어느날 그 숙소 관리인이 내 방



으로 바나나 한 송이를 통째로 갖다 주셨다. 워낙 과일을 좋아했던지라 까서 먹으려고 하는 찰나 ‘혹시 제 사상에 놓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웬지 깨름직해서 숙소 입구에 가보니 거기 놓여있던 바나나 송이가 새 바나나 송이로 바뀌어 있었다. 상에 있던 바나나를 바꾸면서 나에게 전에 있던 녀석을 준 것이다. 안 먹길 잘했구나 싶어서 다 버렸다. 좀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알고서 먹을 수가 없었다. 버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 제가 과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먹을 수 없네요.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과일을 버린 그날 저녁, 현지 숙소 주인이 나를 보고 손짓으로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 했다. 손짓을 보니 시장에 가자는 말인 것 같았다. 알겠다고 하고 따라나섰더니 나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시장으로 갔다. 곧 한국행 비행기를 탈텐데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라 뭔가 웃도 잘 입고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예쁜 신발도 사고 옷도 샀다. 사실 비행기 탈때는 편한 옷과 신발이 최고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고 열심히 시장을 뒤지던 내 모습이 웃기기도 하다. 그렇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장에서 파는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이었다. 바나나를 비롯해서 귤, 사과, 그리고 이름 잘 모르는 많은 과일들을 보니 너무 좋아서 잔뜩 사왔다. 아침에 바나나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과일을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너무 기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멋져요!’ 하며 주님께 감사드렸다.



탈북자 세례식 축하 식사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월드와치리스트20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부터 중국까지,
그리스도인들 박해의 수준 여전히 높아”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조사하는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이하WWL) 연간 보고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73개의 국가에서 극심한, 매우 높은, 혹은 높은 수준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WWL의 최상위 50개 국가들만 살피더라도 2억 6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매우 높은 혹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OpenDoors International)의 연간 발표에 따르면, 최상위 50위 국가 이외에도 23개국

에서 최소 5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여덟 명 중 한 명의 크리스천이 극심한, 또는 매우 높거나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박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몇 개의 국가에서 박해의 주체는 정부이며, 이는 때때로 폭력을 수반한다. 중동,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와 사헬(사하라사막 인근) 지방에서는 각기 다른 박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사헬에서는 이슬람 폭력집단의 부상이 관찰되고 있

며 이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정부와 국가들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WWL2020을 발표하며, 국제 오픈도어 대표인 댄 올리 샨니(Dan Ole Shani)는 이렇게 말했다: “1992년부터 오픈도어 선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고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2002년 WWL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항상 최악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아프가니스탄이 근소한 차이로 2위, 소말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최상위 10개 국가에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내전을 겪은 리비아와 예멘을 포함해서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국가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직장 동료, 지역 사회, 경찰, 법률 시스템과 사회 구조로부터 점점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지수가 높은 상위 50개의 국가 모두에서 압력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29개의 국가가 ‘매우 높음’을 기록한 반면, 올해는 34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목록의 최상위 11개 국가는 ‘극심한’ 수준의 탄압을 겪고 있다. 이 숫자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같다.

2020년 기독교박해지수 상위 50개국

순위	국가	사생활 박해지수	가정생활 박해지수	지역생활 박해지수	국가생활 박해지수	교회 생활 박해지수	폭력 지수	도탈박해 지수
6개 영역별 최대치 16.7								
1	북한	16.7	16.7	16.7	16.7	16.7	11.1	94
2	아프가니스탄	16.7	16.7	16.7	16.7	16.7	10.0	93
3	소말리아	16.5	16.7	16.6	16.6	16.5	9.4	92
4	리비아	15.3	15.5	15.8	16.0	16.4	11.3	90
5	파키스탄	14.0	13.9	15.0	14.9	13.7	16.7	88
6	에리트레아	14.5	14.9	15.9	15.9	15.4	10.9	87
7	수단	14.2	14.6	14.5	15.7	16.1	10.4	85
8	예멘	16.6	16.4	16.4	16.7	16.7	2.6	85
9	이란	14.1	14.3	14.1	15.8	16.5	10.4	85
10	인도	12.9	13.0	13.5	15.0	13.5	14.8	83
11	시리아	13.5	14.2	13.0	13.9	14.4	12.6	82
12	나이지리아	12.2	11.9	13.5	12.8	13.0	16.7	80
13	사우디아라비아	15.1	14.9	14.1	15.5	16.5	2.4	79
14	몰디브	15.4	15.6	14.0	15.9	16.6	0.7	78
15	이라크	14.0	14.6	13.9	14.5	13.6	5.6	76
16	이집트	12.1	13.1	10.7	13.2	10.5	16.1	76
17	알제리	13.5	14.3	10.4	12.8	13.2	9.3	73
18	우즈베키스탄	15.1	12.9	14.1	12.2	15.7	3.0	73
19	미얀마	11.8	11.9	13.5	12.5	12.2	10.7	73
20	라오스	12.8	9.9	14.1	14.4	14.9	5.6	72
21	베트남	12.3	8.5	12.9	13.6	14.5	9.8	72
22	투르크메니스탄	14.5	11.2	13.8	13.3	15.7	1.9	70
23	중국	11.6	8.4	11.6	12.8	15.1	10.2	70
24	모리타니아	13.9	14.0	13.0	13.7	13.4	0.2	68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1	9.1	13.1	9.8	10.2	15.6	68
26	모로코	12.4	13.3	10.8	11.7	14.1	4.1	66
27	카타르	13.6	13.4	10.8	12.2	14.1	2.2	66
28	부르키나파소	9.4	9.7	10.2	9.4	11.8	15.6	66
29	말리	9.2	8.2	12.8	10.0	11.7	13.7	66
30	스리랑카	11.5	9.0	11.0	10.9	9.6	13.1	65
31	타지키스탄	13.9	12.3	11.9	12.4	13.1	1.1	65
32	네팔	12.4	10.8	9.9	12.1	12.2	7.0	64
33	요르단	13.1	14.1	10.7	11.7	12.5	1.7	64
34	튀니지	12.0	12.8	10.3	10.8	12.3	5.4	64
35	카자흐스탄	13.2	11.5	10.7	12.4	14.0	1.7	64
36	터키	12.6	11.8	10.7	13.3	11.3	3.7	63
37	브루나이	13.8	14.3	10.7	10.3	13.5	0.6	63
38	방글라데시	11.1	9.9	12.7	11.1	8.9	9.3	63
39	에티오피아	10.0	9.2	10.6	10.8	10.4	11.9	63
40	말레이시아	12.1	14.6	12.7	12.0	9.6	1.5	62
41	콜롬비아	8.9	7.8	11.9	9.8	8.9	15.0	62
42	오만	12.7	13.1	10.0	11.5	12.7	2.0	62
43	쿠웨이트	13.2	13.1	9.9	11.5	13.4	0.7	62
44	케냐	11.7	10.5	10.9	8.3	10.9	9.1	61
45	부탄	12.8	10.9	11.8	11.6	13.9	0.0	61
46	러시아연방	12.2	8.3	10.7	10.4	12.1	6.9	60
47	아랍에미리트(UAE)	12.9	13.0	9.5	11.1	12.6	1.1	60
48	카메룬	8.8	7.2	11.6	7.0	10.4	15.0	60
49	인도네시아	10.9	11.1	11.6	10.2	9.5	6.5	60
50	니제르	9.4	9.5	13.3	7.2	11.1	9.3	60



수단과 에리트리아

WWL 2019와 비교했을 때 최상위 10위 국가에 생긴 유일한 변화는 수단과 에리트리아의 순위가 서로 6위와 7위로 맞바뀐 점이다. 수단의 알 바쉬르(al-Bashir) 대통령이 퇴출된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에리트리아의 경우 2019년 5월 UN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같은 해 6월, 에리트리아 정부는 카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22개의 병원을 예고 없이 포위, 폐쇄한 데 이어 다섯 명의 정교회 신부를 체포했다. 8월에는 2007년 아래 가택 연금 상태인 정교회 대주교를 친정부 성향의 이단 시비를 근거로 삼아 교회로부터 추방했다.

인도와 중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수, 각각 세속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정치체제를 가진 두 국가인 인도와 중국은 차례로 ‘극심한’,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보이고 있다. 그 박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2019년 WWL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인도는 올해에도 10위에 머물렀다. 2019년 5월 힌두교 극단주의 성향 민족주의자 BJP 소속 나렌다 모디(Narendra Modi)가 재선에 성공한 이래 더욱 강화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WWL 분석가들은 최소 447개의 박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았으나, WWL 2019년에 비해 사망자의 수는 줄어들었다.

중국은 2019년 27위에서 올해 23위로 네 계단 올라섰다. 중국내 크리스천들이 겪는 박해의 평균 수치가 삶의 전 영역과 관련해 상승하였고, 이는 종교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결과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지하’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삼자애국운동(TSPM) 및 중국카톨릭애국회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삼자교회들까지 포함한다. 종교는 공공장소에서 금지되었으며 몇몇 교사들과 의료 종사자들은 그들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 몇몇 지역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연금이 깎일 것이라는 위협도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은 전 영역을 대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과 타 기술을 통한 감시 아래 가능해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의 기독교 박해 동향 5가지



1.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취약지역에 이슬람 과격주의 확산

리비아의 카다피 타도로 인한 권력 공백 이후, 돈, 무기, 마약, 조직 범죄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세력의 물결이 사하라 이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의 지배와 통치의 효과가 없는 취약한 지역에서 크리스천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말리(29위, WWL2019-24위)의 대통령은 2018년 11월 지하디스트가 나라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무장단체는 여러 민족, 부족 그리고 사회경제 집단을 조직하여 신병을 모집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모리타니아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지하드 저항세력과 싸우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2019년 10월, 캐나다 광산 회사 호송대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매복 공격을 당하면서 37명이 사망했다.

부르키나파소

국제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고되지 않아도, 교회들은 큰 표적이 되고 있다. 종교적 박해가 덜하다고 알려진 부르키나파소(28위, WWL2019-61위)가 (역대 처음으로) 카메룬(48위, WWL2019-56위)과 함께 50위권 안에 진입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수십 명의 카톨릭 성직자들이 살해되었고 개신교 목사들과 그 가족들이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거나 납치되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상징을 가진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한 마을 주민들만을 골라 그 자리에서 살해한다. 지하디스트들은 크리스천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아랍' 학교로 대체한다. 교회, 상점, 병원은 불타버렸다.

한 소식통은 "이슬람 테러단체가 주민들에게 이슬람 교도로 개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을 놔두고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독교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지하디스트는 의도적으로 테러를 심고 그 지역의 기독교인 구성원 몇몇을 암살한 후 3일만에 그들

서아프리카 '사헬 Sahel' 지역 :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 돌아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완전히 떠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그 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쫓아내 씨를 말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4월의 사건이다. 오토바이를 탄 무장단체가 부르키나파소 한 마을의 교회에 도착했다. 예배를 드리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전화기와 신분증을 압수당했고 성경책은 수거되어 불태워졌으며, 목사와 6명의 다른 성도들을 밖으로 끌려나가 총살 당했다. 그 중 1명은 살아남았다. 북부에서는 2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 천명의 교인들이 난민 수용소로 옮겨졌으며 일부는 동료신자들과 함께 수도인 와가두구 또는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피난했다. 이곳도 또한, 마그레브의 알 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몇 년 동안 외국인 선교사들을 계속 인질로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말리

뿌리 깊은 지역 분쟁, 갈등과 겹쳐져 더욱 강력해진 이슬람무장단체에 대해 2018년 12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사헬(Sahel)지역 담당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리(29위)에 대해 언급했다. "말리 중북부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말리의 교회는 위협에 처했으며 현재 다양한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매일의 크리스천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48위)에서는 통치와 안보가 큰 문제다. 이 나라는 북쪽에서는 보코하람 때문에 위협받고 있으며 북서쪽과 남서쪽에서는 앵글로폰(영어사용자) 내란자들이 프랑코폰(프랑스어사용자) 다수파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메룬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멀리 북쪽에서는 이슬람 급진화가 싹새나기 시작하여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교회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여성들도 강제로 이슬람교도와 결혼하게 되고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크리스찬의 자녀들은 이슬람교 수업에 참석하도록 강요 받는다.

현재 상태로는 보코하람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깊숙이 침투한 이슬람 이념을 극복해야만 사회적 화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들의 수는 적어도 27개 이상이다. 이는 중앙아프리카(25위, WWL2019-21위)에서 여전히 분쟁 중인 무슬림 반군 셀레카(Seleka)와 전 셀레카(ex-Seleka) 그리고 다른 민병대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살인과 재산의 몰수, 교회 파괴는 흔히 있는 일인데, 2018년 11월 민병대가 알린다오 지역의 한 카톨릭 교회에 불을 지른 후 교회가 운영하고 있던 난민 캠프를 파괴했다. 두 명의 카톨릭 성직자와 한 명의 목사가 112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해되었는데, 대부분

이 기독교인이었다. 지난 5월, 전 셀레카 반군들은 77세의 유럽 수녀를 차드 국경 근처의 자택에서 끌어내 목을 베어 살해하기도 했다. 여러 범죄 집단이 사방에서 출현하면서 이곳의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12위, WWL2019-12위)에서 무슬림 풀라니 목동들의 폭력이 보코하람이 저지른 폭력의 6배에 달한다고 국제 위기 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분류했다. 이 상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부와 중부지역 농민, 교회, 그리고 마을 전체에서 발생한 공격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유엔 난민고등위원회(UNHCR)는 폭력이 북동부에서 북서부와 중부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살인, 강간, 약탈, 방화(10세 이하 소녀 포함) 몸값을 위한 유괴 등 다양한 무장단체와 범죄단체들이 지역사회를 누비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나이지리아 중부의 기독교 다수 민족 공동체를 겨냥한 이러한 폭력은 위치가 높은 고원지대나 훨씬 더 남쪽과 같이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사회로도 확대되고 있다.

급진 이슬람 이념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을 넘어서 4개국에 걸쳐 활동한 'IS 서아프리카 지부'(ISWAP)와 같은 수많은 분열 집단들을 고무시키거나 침투시켰다. 이들은 정부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을 점령한다. ISWAP는 크리스찬 봉사자들을 참수하고 나이지리아에서 과거 종교분쟁으로 사망한 무슬림들에 대한 복수로 '그들이 잡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비디오를 보냈다. 그들은 레아 샤리부라는 여성을 포함해서 여성들과 소녀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다. 레아 샤리부는 14살 때 무슬림 극단주의단체에 납치되어 개종을 강요받았지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104명의 학교 친구들과 함께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치복에서 납치되었던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112명 소녀들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크리스찬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 사건은 무장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대 학생들은 때때로 지역사회 내에서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하고, 자주 납치된다. 종종 나이든 이슬람 남성들과 빠르게 강제 결혼을 맺는데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처벌과 같다.

나이지리아와 다른 서아프리카 소녀들의 상황은 이집트(16위, WWL2019-16위)에서 콥트 기독교 소녀들과 유사하다. 어떤 인신매매일당은 콥트 기독교 여학생을 인신매매해서 돈벌이를 했음을 시인했다.

2.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슬람 과격주의 확산

급진적인 이슬람 자살테러의 영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부활절에 스리랑카(30위, WWL2019-46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잔학 행위에서도 나타났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호텔 등을 공격하여 250명 이상이 사망했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176명의 아이들은 그 날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부모를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 테리크--라바크(Tehreek-e-Labbaik)라는 급진무슬림단체는 무죄판결이 난 크리스찬 여성 아시아 비비에 대해서조차 죽음을 요구했다. 이러한 이슬람 집단의 강력한 힘을 감안한다면 신성모독법의 완화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2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

다 잃었다. 규모는 작지만 폭력적인 스리랑카 무장단체인 NTJ(이전에는 불교를 배척하는 단체였다고 추정됨)는 IS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공격을 감행했다. 부활절에 일어난 이 공격은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테러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월드와치리스트 톱 50개국에는 들지 않지만, 필리핀에서 2019년 1월 남부 줄로섬에 위치한 한 성당이 ‘아부 사야프’ 대원들에 의해 두 차례 폭격을 당해 2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아부 사야프는 공격 일주일 전 민다나오 남부 이슬람교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투표로 이어졌던 협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5위, WWL2019-5위)에서 무슬림들은 삶의

3. 중남미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조직범죄의 확산

부패 스캔들은 2019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강타했다. 이는 종종 국가 구조의 붕괴와 당국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어 더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다. 당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조직적 범죄 집단과 민병대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갈취, 납치, 살해 또는 살해 위협을 받았고 콜롬비아(41위, WWL2019-47위)나 멕시코(52위, WWL2019-39위)같은 나라를 떠나야 했다.



스리랑카 교회 부활절 테러로 희생된 성도들 추모 사진

4.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박해의 위험: 보안 감시 강화

중국

오늘날 중국(23위, WWL2019-27위)에는 공산당원보다 기독교 신자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종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이나 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정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알라신을 믿는 위구르족도 마찬가지인데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이 ‘체제적 세뇌’와 강압적 통제로 신장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9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투옥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을 수용하지 않고 감시하는 것이 더욱 쉬울지도 모른다. 이미 ‘종교적 자유’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은 생체인식 기술과 인공지능의 사용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삼자애국운동교회(이하 삼자교회)의 장은 ‘서방의 반중 세력’을 비난하며 ‘중국의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기독교를 이용해 중국의 정치까지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친공산당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삼자교회 집회도 당국의 심각한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사무조례”의 영향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 조례는 중국 내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허난성(크리스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간쑤성에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삼자교회로 등록하더라도 사회적 고립이나 박해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한다. 성도들은 끝없는 공안의 감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카메라와 얼굴 인식과 같은 감시 시스템에 들어가야 한다. 신장에서 한 삼자교회는 안면인식 검사를 위해 성도들을 대기시키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는 현재 후베이성의 중부 지방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 신용



시스템(SCS)”을 시험 운영 중인데, 산둥성 룽청은 이 제도를 이용해 ‘기독교인들이 불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휴휴대전화 구입할 때 안면인식을 의무화하는 법과 인터넷 사용 시 의무적으로 ‘사회 신용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노출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8년 9월 종교에 관한 ‘혼란스러운’ 온라인 정보들을 억제하겠다고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온라인 정보는 기독교인들, 특히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주요한 신앙자원의 원천이다. 하지만 이제 종교적 온라인 정보 공유는 지방 종교부가 허가를 내야만 허용된다.

인도

인도(10위, WWL2019-10위)에서도 생체인식 기반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제2기 인도국민당(BJP) 주도의 정부는 “진정한 인도인이 되려면 힌두교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힌두교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다. BJP의 이러한 전략은 최근 대법원의 아요디아 힌두교 사원 재건을 허용한 판결뿐만 아니라, 9개 주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타종교로 강제 개종금지”를 확대하자는 거둬들인 제안에서도 보여진다.

인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국가적인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경찰 업무를 원활히 하는 일환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피부

색이 어두운 사람들과 소수민족 출신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체계적 분석을 위해 이를 제도와 할 위험이 있다. 올해 적어도 447건의 폭력 및 증오 범죄(경찰의 불응과 심지어 결탁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로 입증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타겟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또 대중매체는 기독교인을 ‘서방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끔 왜곡하고 있으며 비정부기구(NGO)들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자금 유입도 면밀한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갈등과 불안정으로 인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 쇠락

거의 9년간의 시리아(11위, WWL2019-11위) 내전과 수년 간의 이라크(13위, WWL2019-15위) 분쟁은 기독교 공동체를 계속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라크

이라크에서 2003년 이전에 150만 명에 달했던 크리스천 인구는 현재 20만2000여 명으로 한 세대 만에 87%나 감소했다. 일부는 주거지를 찾기위해, 주로 니느웨 평원으로, 조금씩 귀환했지만 그들은 안보, 교육, 건강,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民兵대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다.

2019년 여름, IS로부터 탈환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봉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한 외부 기독교인들을 제외하면, 오직 50-75명의 기독교인들만이 모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갈데아 카톨릭 총대주교 루이스 사코하스는 시아파 집단이 다시 니느웨 평원에서 '대규모 난민사태'를 일으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라크를 지배하는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 모든 불안정한 상황들이 난민들의 귀환을 막고 있다.

시리아

시리아는 더 복잡한 그림이다. 내전 이전에 220만 명으로 집계된 기독교인 인구가 현재 약 74만 4천 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시리아를 떠났다. 다마스쿠스의 마로나이트 주교인 사미르 나사(Samir Nassar)는 시리아의 교회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도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역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고령화되고 젊은 교인들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은 비슷하다.

시리아의 크리스천들은 연료, 물, 식량 부족은 물론 빈약한 의료 시설과 빼앗긴 교육 및 고용 기회로 고통받고 있다. 시리아의 기독교인 인구는 대부분 국가 내에서 난민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국외로 피난하여 난민으로 남아 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가톨릭 자선단체에 따르면, 알레포 기독교 인구는 지난 1년 동안 10% 감소한 3만 명 이하로 집계되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 남기로 선택한 기독교 난민들 중 남자들은 징병을 두려워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터키의 북동부 시리아 침공은 주로 쿠르드 지역에 거주하고있는 4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터키의 시리아 난민 송환 계획이 또한 아랍 수니파 세력을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난민 사태를 발생시켜 쿠르드족과 크리스천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다.



WWL2020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

	WWL 2020	WWL 2019	WWL 2018	WWL 2017	WWL 2016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2,983 명	4,305	3,066	1,207	7,106
교회와 크리스천들과 관련된 건물 공격	9,488 건	1,847	793	1,329	2,425
크리스천들은 재판 없이 구금, 체포, 수감	3,711 명	3.15	1,905	-	-
크리스천들을 유괴	1,052 명	-	-	-	-
크리스천들은 강간 또는 성희롱을 당함	8,537 명	-	-	-	-
크리스천들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의 강제 결혼	630 명	-	-	-	-
크리스천들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함 (폭행 및 살인협박 포함)	14,645 명	-	-	-	-
크리스천들의 집 또는 재산들(가게 포함)이 공격당함	3,315 건	-	-	-	-
크리스천들의 가게 또는 사업이 공격당함	1,979 건	-	-	-	-

살해된 총 기독교인의 수

살해된 총 기독교인 수는 WWL 2019년 4,305명에서 WWL 2020년 2,983명으로 감소했다. 이번 하락세의 근거는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방하지 않아 수가 줄어든 반면,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살해가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풀라니 목동 무장 세력의 전술이 부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되었다. 기독교인의 주택과 기독교 공동체를 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들은 납치와 도로 봉쇄 살인에 더 중점을 두었다.

공격당한 교회 수

다양한 형태로 공격받은 교회 수는 WWL 2019년 1,847개에서 WWL 2020년 9,488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은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표방하는 정책들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폭력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하드 단체들이 하는 역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해야 한다. 집과 재산 혹은 가게와 사업이 공격 받고 있고 납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또한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폭력은 종종 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지하드 집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순교한

기독교인의 수는 상당부분 누락됨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폭력은 더 교묘하다.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폭력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두들겨 맞거나 다치거나 집에서 쫓겨난다.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산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한 건수는 종종 누락된다. 인도는 월드와치리스트 2020 Top 10에 올랐다.

현재 보고된 성적 학대의 사건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독교인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기 때문에 제시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위 7개국 중 아라비아 반도(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나라는 4개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성희롱이나 학대에 매우 취약한 아랍 가정의 아프리카와 아시

아 가정부들의 상황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폭력은 대부분 비공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

월드와치리스트 2020 상위 50개국의 10개 폭력의 범주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으로 폭력에 관한 자료가 제시된 나라는 5개국이다. 이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북한, 소말리아, 그리고 예멘이다. 이러한 국가의 데이터는 라틴어 "Nomen Nescio"("이름을 알 수 없음")를 나타내는 "NN"으로 표시된다.

국가 이름 옆에 별표("*")가 있는 아래 표에서, 주어진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며 이는 실제 사건 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확히 셀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징적인 어림 숫자(10, 100, 1000)로 나타낸다. (실제로 1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100 이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 숫자는 불확실하다. 상징적인 숫자 100은 1000을 훨씬 넘을 수 있지만 실제 숫자는 불확실하다. 상징적인 숫자 1000은 10,000을 훨씬 넘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해, 실제 숫자는 불확실하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고된 사건 수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질 수 있지만 주어진 숫자는 최소 수치임을 이해해야 한다.

월드와치2020 국가별 박해 통계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처형 포함)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	나이지리아	1350	17	카메룬	10
2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924	18	NN	10
3	스리랑카	200	19	인도	9
4	콩고 민주 공화국	152	20	우간다	9
5	남수단*	100	21	에티오피아	6
6	부르키나파소	50	22	멕시코	6
7	이집트	23	23	이라크	3
8	파키스탄	20	24	미얀마	3
9	NN	20	25	에리트레아	2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0	콜롬비아	16	26	코트디부아르	2
11	모잠비크	12	27	우즈베키스탄	1
12	케냐	11	28	베트남	1
13	NN	11	29	네팔	1
14	리비아*	10	30	베네수엘라	1
15	시리아	10			2983
16	말리*	10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공격, 파손, 폭격, 약탈, 파괴, 소실, 폐쇄 또는 몰수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
(학교, 병원, 공동묘지 등) 수는?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	중국	5576/171(19년)	27	탄자니아	10
2	앙골라	2000	28	남수단*	10
3	르완다	700	29	니카라과*	10
4	미얀마	204	30	멕시코	8
5	나이지리아	150/569(19년)	31	네팔	7
6	에티오피아	124	32	우간다	7
7	부룬디	100	33	시리아	5
8	말리*	100	34	라오스	5
9	파키스탄	58	35	모잠비크	5
10	부르키나파소	50	36	터키	4
11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47	37	차드	4
12	콜롬비아	40	38	베네수엘라	4
13	인도	34	39	리비아	3
14	수단	32	40	케냐	3
15	이란	23	41	쿠바	3
16	에리트레아	21	42	NN	2
17	이집트	18	43	NN	2
18	스리랑카	16	44	모로코	2
19	카메룬	15	45	튀니지	2
20	방글라데시	14	46	팔레스타인 영토	2
21	알제리	13	47	이라크	1
22	베트남	10	48	카타르	1
23	러시아 연방	10	49	요르단	1
24	인도네시아	10	50	기니	1
25	니제르*	10	51	코르디부라르	1
26	콩고 민주 공화국*	10			9488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재판 없이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는?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	중국*	1000	27	러시아 연방	10
2	에리트레아	785	28	쿠바	10
3	인도	295	29	우간다	10
4	나이지리아	225	30	부룬디*	10
5	이란	169	31	앙골라*	10
6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52	32	르완다*	10
7	베트남	134	33	모로코	9
8	NN*	100	34	에티오피아	9
9	리비아*	100	35	사우디아라비아	8
10	알제리	90	36	미얀마	6
11	라오스	30	37	팔레스타인	5
12	이집트	22	38	니카라과	5
13	방글라데시	20	39	인도네시아	4
14	멕시코	20	40	NN	3
15	아제르바이잔	20	41	이라크	3
16	우즈베키스탄	15	42	튀니지	3
17	카자흐스탄	15	43	시리아	2
18	파키스탄	14	45	오만	2
19	말레이시아 연방	14	46	카메룬	2
20	타지키스탄	11	47	베네수엘라	2
21	네팔	11	48	스리랑카	1
22	기니*	10	49	니제르	1
23	NN*	10	50	바레인	1
24	NN*	10	50	기니	1
25	수단*	10			
26	투르크메니스탄	10			3420

기독교인들이 종교와 관련된 이유로 강간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한 수는?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	NN*	1000	21	알제리*	10
2	사우디아라비아*	1000	22	모로코*	10
3	이집트*	1000	23	부르키나파소*	10
4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000	24	카메룬*	10
5	카타르*	1000	25	니제르*	10
6	쿠웨이트*	1000	26	차드*	10
7	아랍 에미리트 연방*	1000	27	부룬디*	10
8	나이지리아	450	28	모잠비크*	10
9	콩고 민주 공화국	355	29	코트디부아르	10
10	남수단*	100	30	방글라데시*	10
11	에리트레아*	100	31	튀니지	6
12	리비아*	100	32	NN	2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3	오만*	100	33	미얀마	2
14	바레인*	100	34	우간다	2
15	인도	41	35	기니	2
16	파키스탄	31	36	시리아	1
17	콜롬비아	11	37	중국	1
18	수단*	10	38	스리랑카	1
19	이란*	10	39	케냐	1
20	이라크*	10	40	탄자니아	1
					8537

기독교인들이 감옥, 노동 수용소, 처벌로 정신병원에 보내진 수,
또는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비슷한 일들을 당한 수는?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	NN*	1000	15	카자흐스탄 공화국	4
2	중국	147	16	러시아 연방	4
3	베트남	60	17	튀니지	3
4	파키스탄	57	18	쿠바	3
5	이란	25	19	우간다	3
6	나이지리아 (실질적으로 10)	20	20	수단	2
7	NN*	10	21	사우디아라비아	2
8	인도	7	22	이집트	2
9	방글라데시	7	23	라오스	2
10	에티오피아	7	24	인도네시아	2
11	콜롬비아	6	25	멕시코	2
12	NN	5	26	타지키스탄	1
13	미얀마	5	27	베네수엘라	1
14	네팔	4			1391

신앙과 관련된 이유(박해, 실종된 기독교도 포함)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나라	사람 수		나라	사람 수
1	나이지리아	224	10	미얀마	27
2	콩고 민주 공화국	189	11	부르키나파소	20
3	파키스탄*	100	12	중국	14
4	카메룬*	100	13	인도	11
5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00	14	NN*	10
6	차드	60	15	말리	10
7	리비아	50	16	콜롬비아*	10
8	이집트	48	17	니제르*	10
9	시리아	27	18	남수단*	10
					1020

월드와치리스트2020 유럽의회 발표

국제오픈도어는 1월22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월드와치리스트2020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오픈도어 본부 관계자와 함께 탈북자 티모시(가명)도 참석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발표장에는 유럽의회 의원들 뿐 아니라 자문위원,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오픈도어는 그보다 일찍 1월15일에 국내 기독교언론매체 기자간담회를 열어 월드와치리스트2020을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전세계 기독교박해 보고와 통계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발표를 강력하게 사용해주시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나이지리아, 라완 안디미(Lawan Andimi) 목사님 순교



▶ 납치범들이 공개한 동영상에 나온 생전의 라완 목사님

이슬람 극단주의 보코하람이 장악한 북부나이지리아 아다마와 주에서, 기독교연합회(CAN:Christian Association of Nigeria) 의장인 라완 안디미 목사님이 지난 1월3일, 보코하람 극단주의 단체 단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결국 1월 20일에 참수당하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라완 목사님의 유족으로는 사모님과 9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기독교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이지리아 대통령에게 관련 이슬람 지도자들의 체포를 요구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정부의 철저한 수사 와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기도해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유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란, 기독교로 개종한 ‘65세 이스마에일’ 에 3년형 선고

1월11일, 이란법정은 이슬람형법 513조에 의해, 65세의 크리스찬 이스마에일(Ismael Maghrebinejad)에게 ‘이슬람의 신성한 신념 모독죄’ 로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기간은 20일 입니다. 이스마에일은 1년 전인 2019년 1월에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슬람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 과, “정부에 적대적인 단체에 가입” 했다는 것입니다. 사형까지도 갈수 있는 “배교” 혐의도 있었지만 이는 지난 11월에 기각되었습니다. 거의 40년 전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계속 괴롭힘을 당해온 이스마에일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집트, 송구영신예배 교회공격, 성도 가정집 4곳 방화

지난 12월 31일 이집트 파우 바리(Faw Bahry)라는 곳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마을교회를 공격하고 그 교회 성도 가정집 4곳을 불태웠습니다. 범인들은 범행의 이유로, 그 교회의 법적 등록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배를 기획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의 극단주의자들을 체포했으나, 그들에 의해 집이 불탄 성도 4명과 불타는 장면을 촬영한 크리스찬 청년 1명도 같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예배취소와 교회문 폐쇄도 요구했습니다.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정한 법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사와 무관 - 2019년10월 카이로 교외의 콥트교회 원인모를 화재 모습

중국, 청두 중급인민법원, 왕이 목사에게 9년형 선고



2019년 12월30일, 중국 쓰촨성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이른비언약교회’를 담임하는 왕이 목사에게 ‘국가권력을 전복하려고 선동’ 하고, ‘불법적인 사업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뒷바침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는 없습니다. 첫 3년간의 구금기간 동안 왕이 목사에게서 모든 정치적 권리는 박탈됩니다. 당국은 또한 50,000위안(약840만원)에 해당하는 왕이 목사의 개인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왕이 목사의 교회는 1년 전인 2018년 12월부터 폐쇄당했고, 교인들은 길거리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긴 시련에 들어선 목사님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 오디샤(오리싸)박해 피해 수감자들 보석 석방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인도 최악의 반기독교 폭력 박해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2008년의 인도 오리싸(오디샤로 명칭이 변경됨) 박해사태의 억울한 수감자 7명 중 남아있던 5명이 2019년 12월13일 보석으로 풀려나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힌두교도들에 의해 300개 교회와 6000채의 크리스찬 주택들이 공격과 방화를 당하고 크리스찬 100명이 죽임을 당했으나, 힌두교도와 경찰은 그 원인이 이들이 힌두교 승려를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덮어씌우기 위해 무작위로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Heart to Heart

후원자 스토리 

나는 Amar Sharma 박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역단체 JS 미니스트리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딸, 사위 모두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역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뿐만 아니라, 저는 청소년기 이후로,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열렬한 지지자로 가능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영국 선교사님들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고아원에서, 고아원 관리자인 일부 인도사람들에게와 나보다 나이가 든 형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벌레와 곤충이 빠져있는 밀전 죽을 음식으로 받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회초리로 맞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굶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받은 학대와 매질로 인해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들이 고아원 재산을 훔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독방에 며칠씩 감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충명한 학생이었고, 전국적으로 톱 레벨에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의학을 공부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고아원 관리자는 고아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의학공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은 항상 내편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위로자셨습니다. 구타와 매질이 너무 심해서 결국 나는 고아원을 떠나, 아무 도움의 길 없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1달러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구했지요. 주님은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주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나는 메디컬 연구 교수가 되었습니다. 수입도 많았고 아름다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빠졌고 여러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시체영안실에까지 옮겨졌다가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업적으로 최고의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후로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37년째 사역을 하고 있으며, 모든 걸 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겪은 모든 고난으로 인해 나는 박해받는 크리스찬들과 일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몇 년째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받는 이들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 딸 제인이 한국오픈도어에 후원방법을 묻는 메일을 보냈지요. 우리는 오픈도어가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방식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현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픈도어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한사람 한사람을 매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구해주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Amar Sharma

*지난 12월에 한국오픈도어로 1,400의 현금과 함께 보내오신 편지입니다.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했습니다.



“순교자/투옥자 가족, 파괴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월드와치리스트2020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간 거의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3,700명 이상이 재판없이 투옥되었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집과 재산이 파괴와 공격, 몰수를 당한 일들은 15,000건에 이릅니다.
1월에 순교하신 나이지리아 라완 목사님은 납치범들이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서 동료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 슬퍼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는 극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순교자와 투옥자 가족, 파괴된 교회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헌금은 아래 희망의 선물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선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알립니다

-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을 위한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교회나 기관은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pendoorkorea@gmail.com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300기도용사” 를 신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주간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010-7548-3171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 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오픈도어 선물’ 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odsk@opendoors.or.kr
- 월간 소식지와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상단메뉴 자료실/발행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박해퍼즐은 쉽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동화 회계프로그램을 도입 중입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